[15] 1월

초 1일(경진)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한살을 더하게 되니 이는 난리 중에도 다행한 일이다. 늦게 군사훈련차 본영으로 돌아오는데 비는 그치지 아니했다. 신사과(愼司果)에게 문안하였다.

초 2일(신사) 비는 그쳤으나 그대로 흐렸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보지 아니했다. 신사과를 청하여 함께 이야기했는데 첨지(僉知) 배경남(裵慶男)도 왔었다.

초 3일(임오)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문을 적어 보냈다. 날이 저물어 관아로 돌아와서 여러 조카들과 이야기했다.

초 4일(계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문을 적어 보냈다. 저녁에 신사과 배첨지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난홍점(南泓漸)이 영(營)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다.

초 5일(갑신) 비. 비. 신사과가 와서 이야기했다.

초 6일(을유) 비. 동헌에 나가 남평 도병방(南平都兵房)을 처형했다. 저녁 내내 서류를 처결했다.

초 7일(병술) 비. 동헌에 앉아 공문을 적어 보냈다. 저녁에 남의길(南宜吉)이 들어와서 마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초 8일(정해) 맑음. 동헌 방에 앉아 배첨지, 남의길과 종일 이야기했다. 늦게 공무를 보았으며 남원 도병방(南原都兵房)을 사형했다.

초 9일(무자) 맑음. 아침에 남의길과 더불어 이야기했다.

초 10일(기축) 맑음. 아침에 남의길을 맞이하여 이야기하다가 피란하던 때 고생하던 일들을 갖추 갖추 말함에도 개탄함을 이기지 못했다.

11일(경인)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어머님을 뵈옵기 위해 배를 타고 바람을 따라 바로 고음내(古音川)에 대었다. 남의길, 윤사행(尹士行) 조카 분(芬)과 함께 갔었다. 어머님께 가니 아직 주무시고 계시어 일어나지 않으셨다. 웅성대는 바람에 놀라 깨셨는데 기운이 아주 가물가물해 앞이 얼마 남지 않으신 듯하니 다만 애닦은 눈물을 흘릴 뿐이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데에 착오는 없으셨다. 적을 토벌할 일이 급하여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이날밤 손수약(孫守約)의 아내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다.

12일(신묘) 맑음. 아침을 먹은 뒤에 어머님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 하고 두번 세번 타이르시며 조금도 이별하는 것으로 탄식하지는 아니하셨다. 선창에 돌아와서는 몸이 불편한 것같아 바로 뒷방으로 들어갔다.

13일(임진) 맑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자리에 누워 땀을 내었다. 좀 팽수(彭壽)와 평세(平世)가 보러 왔었다.

14일(계사) 흐리면서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조카 뇌()의 편지를 보니 설날 아산(牙山)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무려 2백여명이나 산을 둘러 싸고 음식을 달라고 덤뻐했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느직이 동헌에 나가 장계 올릴 것을 봉함하고 또 의능(宜能)을 면천(免賤)시켜 준다는 공문을 봉해 올렸다.

15일(갑오) 맑음. 이른 아침에 남의길 및 여러 조카들과 함께 있다가 동헌으로 나갔다. 남의길은 영광(靈光)으로 가고자 했다. 종 진(辰)을 찾는데 대해 서류를 만들었다. 동궁(*광해군(光海君)의 분부를 전달하는 서한이 왔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적을 토벌하라는 것이었다.

16일(을미) 맑음. 아침에 남의길을 청해다가 작별하는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나도 많이 취해서 늦게야 동헌에 나갔다. 황득중(黃得中)이 암행어사로 흥양(興陽)에 들어 왔으며 집문서가 그의 손에 들어갔다고 했다. 어둑녘에 방답(*이순신(李純信))과 배첨지가 와서 이야기했다.

17일(병진) 새벽에 눈이 오고 늦게나 비가 왔다. 이른 아침 배에 올라 여필(*아우) 및 여러 조카와 아들들과 작별하고 다만 분(芬 * 조카) 울(蔚 * 둘째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이날 장계를 띄워 보냈다. 오후 4시께 와두(瓦頭 * 노량지경)에 이르니 역풍에다 쓸물때여서 운할 수 없어 닻을 내리고 조금 쉬었다. 오후 6시께 다시 닻을 걸어 노량에 이르렀다. 여도 만호(呂島萬戶 * 김인영(金仁英)) 순천(順天 * 권준(權俊)) 이함(李) 및 우후(*이몽구(李夢

龜)들도 와서 함께 잤다.

18일(정유) 맑음. 새벽에 출발할때는 역풍이 크게 일더니 창신도(昌信島 * 남해군 창선도)에 이르니 바람이 순하게 불었다. 그래서 돛을 달고 사랑(蛇梁 * 통영군 사랑면)에 이르니 도로 역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다. 만호(* 사랑 만호 이여념(蛇梁 萬戶 李汝恬))와 수사(* 원군)의 군관 전윤(田允)이 보러 왔다. 전에 말하기를 수군을 거창(居昌)으로 불들어 왔다고 하며 원수(元帥)가 방해하려 한다고 했다. 가소롭다. 예로부터 남의 공을 시기하는 것이 이 같은 것이니 무엇을 한탄하라. 놀러 묵었다.

19일(무술) 흐리다가 늦게 맑아졌다. 바람이 크게 불었는데 해가 진뒤에 더 거세어졌다. 아침에 떠나 당포(唐浦 * 통영군 신양면) 바깥 바다에 이르러 바람을 따라 반(半) 돛을 달고 순식간에 어느덧 한산도에 이르렀다. 사정(射亭)에 올라 앉아 여러 장수들과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원(元)수사도 왔다. 소비포(* 이영남(李英男))에서 영남 여러배의 사부(射夫)와 격군(格軍)들이 거의 다 굶어 죽게 되었다는 말은 참혹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원수가 공연수(孔連水)와 이극함(李克)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두 다 관계하였다고 한다.

20일(기해) 맑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살을 에듯 추워 여러 배에 옷없는 사람들이 목을 움추리고 추워 떠는 소리는 차마 듣기 어려웠다. 낙안(樂安 * 신호(申浩))과 우수사 우후(右水使虞候 * 이충정(李忠廷))가 보러 왔다. 늦게 소비포 웅천(熊川 * 이운룡(李雲龍)) 진해원(鎭海 * 정항(鄭沆))들도 왔다. 진해는 명령을 거부하고 진작 오지 않아 죄 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만나 보지 않았다. 바람은 다소 자는 듯했으나 순천이 들어올 것이 염려되었다. 군량도 도착되지 않아 이 역시 답답했었다. 병들어 죽은 사람들을 거두어 장사 지낼 차사원(差使員)으로 녹도 만호(鹿島 萬戶 * 송여종(宋汝宗))를 정해 보냈다.

21일(경자) 맑음. 아침에 본영 격군 7백 42명에게 술을 먹였다. 광양이 들어 왔다. 저녁에 녹도 만호가 와서 보고하는데 병들어 죽은 시체 2백 14명을 거두어 묻었다고 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돌아온 2명이 원수사의 진영으로부터 와서 여러 가지로 적의 정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나 믿을 수가 없었다.

22일(신축) 맑음.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었다. 사정에 올라 앉아 진해(* 정항(鄭沆))를 시켜 교서(敎書)에 숙배례(肅拜禮)를 행하게 하고 종일 활을 쏘았다. 녹도가 병으로 죽은 시체 2백 17명을 거두어 묻었다고 했다.

23일(임인) 맑음. 낙안(樂安)이 하직을 고하고 나갔다. 흥양(興陽)의 전선 2척이 들어왔다. 최천보(崔天寶) 유항(柳滉) 유충신(柳忠信) 정양(丁良)들이 들어 왔다. 늦게 순천(* 권준(權俊))로 들어왔다.

24일(계묘) 맑고 따뜻했다. 아침에 산역(山役)일로 목수 41명을 송덕일(宋德日)이 거느리고 갔다. 영안 원수사가 군관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좌도(* 경상 좌도)에 있는 애적 3백여명을 죽였다고 한다. 대단히 기쁜 일이었다. 평의지(平義智 * 대마도 주종의지(對馬島主宗義智))가 지금 웅천(熊川)에 있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다. 유항을 불러다가 암행어사가 붙잡아 간 사건에 대해서 물은 즉, 문서들이 제멋대로 꾸며졌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다. 또 격군에 대한 일을 들으니 아전들의 잔악한 짓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 군령을 내려 소모군(召募軍) 1백 44명을 붙잡아 오라고 하고 또 현감(* 흥양)을 독촉하여 군령을 보내도록 했다.

25일(갑진) 흐리다가 늦게 맑았다. 송두남(宋斗男) 이상록(李尙祿)들이 새로 만든 배를 돌려 올일로 사부(射夫) 격군(格軍) 1백 32명을 거느리고 갔다. 아침에 우수가 우후(* 이정충)가 아서 아침을 함께 먹고 늦게는 활을 쏘았다. 우수사 우후와 여도(* 김인영)가 활쏘기를 겨루었는데 여도가 7분을 이겼다. 나는 10순을 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20순을 쏘았다. 저녁때 종허산(許山)이 술병을 훔쳐 내다니 붙잡혔기에 곤장을 때렸다.

26일(을사) 맑음. 아침에 사정으로 올라가 활을 쏘았다. 순천(* 권준)이 기일을 어겼기로 벌을 주고 눌러 앉아 공무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다. 오후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온 진주(晋州) 여자1명, 고성(固城) 여자1명, 서울사람 2명을 데려왔는데 서울 사람은 정창연(鄭昌衍)과 김명원(金命元)의 종이라고 한다. 또 왜놈 하나가 스스로 와서 우리에게 항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7일(병오) 맑음. 새벽에 배 만들 목재를 끌어 오기 위해서 우후(* 이몽구)가 나갔다. 새벽에 변유헌(卞有憲)과 이경복(李景福)이 들어왔다고 보고 하였다. 아침에 충청 수사(忠淸水使 * 구사직(具思稷))의 회답 편지가 오고 어머니의 편지와 여필(汝弼)의 편지도 왔는데 어머니께서 안녕하시다고 했다. 다행하다. 다만 동문밖 해운대(* 여수지 동북쪽) 옆에 햇불 강도가

나타나고 미평(未坪)에도 역시 햇불 강도들이 들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늦게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 김승룡(金勝龍))와 순천이 함께 왔다. 아침에 소지(所志)와 그밖의 공무를 처결하고 스스로 항복해 온 왜놈을 신문해서 공술받았다. 원수사의 군관 양밀(梁密)이 제주 판관(濟州判官)의 편지와 말 안장, 해산물, 굴, 유자 따위를 보냈기로 곧 어머님께 보내드렸다. 저녁에 녹도(鹿島) 북병한 곳에 왜적 5명이 횡행하여 총질을 하기로 한 놈을 쏘아 목을 베고 남은 놈들은 화살을 맞고 도망갔다. 저물녘에 소비포(* 이영남)가 왔다. 우후의 배가 재목을 싣고 왔다.

28일(정미) 맑음. 아침에 우후가 보러 왔다. 종사관에게 공문을 써서 강진 영리(康津 營吏)에게 주어 보냈다. 늦게 원식(元植)이 서울 올라간다고 왔기에 술을 대접하여 보냈다.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가 보고 하기를 유제독(劉提督 * 정(縱)이 군사를 돌려 이달 25, 26 일께는 올라간다고 하며 또 위무사(慰撫使) 홍문교리(弘)文校理 권(權)이 도내를 순시한 뒤에 수군에도 들어올 것이라고 하였다. 또 또 화적 이산겸(李山謙)들을 잡아 가두고 아산(牙山), 온양(溫陽)등 고을에서 횡행하는 화적떼 90여명을 잡아 죽였다고 하며 또 호익장(虎翼將)이 근일중 들어오리라고 했다. 저물녘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부슬부슬 내렸다. 전선(戰船)을 만들기 시작했다.

29일(무신) 비. 비. 종일토록 내리고 밤새도록 내렸다. 새벽에 여러 배들이 무사하다고 보고 받았다. 몸이 불편하여 저녁내 누워 신음하는데 큰 바람 센 파도로 배가 인정하지 못하여 마음이 매우 산란하였다. 미조항 첨사(* 김승룡)가 배를 꾸밀 일로 돌아갔다.

30일(기유) 흐리고 큰 바람이 불더니 늦게는 개고 바람도 조금 잦다. 순천과 우수사 우후와 강진(康津 * 유해(柳澮))이 왔다. 미조항 첨사가 돌아간다고 인사하러 왔기에 평산포에서 도망갔다가 잡혀온 군인 3명을 그편에 딸려 보냈다. 나는 몸이 편치 않아 종일 땀이 흘렀다. 군관과 여러 장수들은 활을 쏘았다.

[16] 2월

초 1일(경술) 맑음. 늦게 사정(射亭)에 올라가 공부보았다. 청주(靑州) 사는 겸사복(兼司僕) 이상(李祥)이 임금의 분부를 가져 왔는데 [경상 감사 한효순(韓孝純)이 장계하되 좌도에 있는 왜적들이 합하여 거제(巨濟)로 들어가니 장차 전라도 지경을 침범할 것이라 그대는 삼도(三道)수군을 합하여 적을 무찌르라]는 것이었다. 오후에 우수사 우후를 불러 활을 쏘았다. 초저녁에 사도 첨사(* 김완)가 전선 8척을 거느리고 진에 이르렀다. 이경복(李景福) 노윤발(盧潤發) 윤백년(尹百年)들이 도망가는 군인을 싣고 육지로 들어가는 배 8척을 붙잡아 왔다. 저녁때 가는 비가 내리더니 얼마 안되어 그쳤다.

초 2일(신해) 맑음. 아침에 도망가는 군인들을 실어 내던 사람들의 죄를 다스렸다. 사도 첨사가 와서 전하기를 낙안(* 신호)이 파면되었다고 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갔다. 동궁에게 올린 장달(狀達)의 회답이 내려 왔다. 각 관포(官浦)의 서류들을 처결하여 보냈다. 활 10순을 쏘았다. 바람 형세가 조용하지 않았다. 사도 첨사(김완)를 기한에 대지 못한 죄로 처벌하였다.

초 3일(임자) 맑음.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눈 하나가 먼 말을 보았다. 이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식후에 사정에 올라가 활을 쏘았다. 광풍이 크게 일었다. 우조방장(右助防將 * 어영담)이 왔는데 그에게서 역적들의 소식을 듣고 걱정되며 통분함을이기지 못했다. 우우후(右虞候)가 부물(負物)을 여러 장수에게 보내 왔다. 원식(元植)과 원전(元典)이 와서 상경한다고 했다. 원식은 남해(南海)에게 쇠붙이를 바치고 면천공문(免賤公文)한장을 받아 가지고 갔다. 날이 저물어 막으로 내려왔다.

초 4일(계축) 맑으나 바람이 세었다. 조식 후에 순천(* 권준)과 우조방장을 불러다가 이야기했다. 늦게 본영의 전선과 거북선이 들어왔다. 조카 봉과 이설(李潑) 이언량(李彦良) 이상록(李尙祿) 등이 강돌천(姜堉千)을 거느리고 왔다. 동궁의 명령이 왔고 정찬성(* 정탁(鄭琢))의 편지도 가져왔다. 각 관포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순천서와 보고하기를 무군사(撫軍司)의 공문에 의거한 순찰사(* 이정암)의 공문에는 진중에서 과거를 보이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한 것이 아주 옳지 않으니까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었다. 가소로운 일이다.

초 5일(갑인) 맑음. 새벽 꿈에 좋은 말을 타고 바위가 첩첩한 큰 산마루로 올라가니 아름다운 산 봉우리들이 동서에 뻗어 있고, 또 산마루 위 편평한 곳이 있기로 거기다 자리를 잡으려다 깨었는데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또 어떤 미인이 혼자 앉아 손짓을 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고 앉았으니 우스운 꿈이었다. 아침에 군기사(軍器寺)에서 받은 은 흑각궁(黑觸弓) 1백장을 낱날이 헤어 수결했고 화피(樺皮) 89장도 역시 계산하여 수결했다. 발포 만호(* 황정록(黃廷祿))와 우수사 우후가 보러 왔기에 식사를 함께 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가 순창(淳昌) 광주(光州)의 색리(色吏)들을 치죄했다. 우조방장, 우수사, 우후, 여도(* 김인영)들과 활을 쏘았다. 원수(元帥 * 권율)의 회답이 왔는데 심유격(沈遊擊)이 벌써 화친을 결정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간사한 꾀와 교묘한 계책을 헤아릴 길이 없는 자들이라 전에도 농들의 꾀에 빠졌고, 또 이렇게 빠져 들어가니 한탄스러운 일이다. 저녁때 날씨가 찌는 것 같아 마치 초여름이나 된듯 하였다. 밤이 되면서 비가 시작하였다.

초 6일(을묘) 비. 비. 오후에 개었다. 순천과 조방장과 응천(* 이운룡(李雲龍)) 사도(* 김완)가 보러 왔다. 어두워서 흥양(배흥립)과 김방제(金邦濟)가 유자 30개를 가져 왔는데 생생한 것이 마치 새로 딴 것 같았다.

초 7일(병진) 맑음. 서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우조방이 보러 와서 지휘선에 속한 배를 타고 싶다고 제의하였다. 어머님께와 홍군우(洪君遇) 이숙도(李叔道) 강인중(姜仁仲)들에게 문안 편지를 써서 조카 분(芬)이 가는 편에 부쳤다. 봉과 분은 나갔는데 봉은 나주로 가고 분은 온양으로 갔다. 섭섭한 마음 금치 못하였다. 각 배의 소지 2백여장을 처결하여 돌려주었다. 고성 현령(固城縣令 * 조응도(趙凝道))의 보고에 적선 50여척이 춘원포(春院浦 * 통영군 광도면 예승포)에 왔다고 했다. 삼천포 권관과 가배량(加背梁) 권관 제만춘(諸萬春)이 와서 서울 소식을 전하였다. 이경복(李景福)을 입대 도피하는 격군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내 보냈다. 이날 군대를 다시 편성하고 격군들을 각 배에 옮겨 태웠다. 방담 첨사에게 도피자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하였다. 낙안 군수의 편지가 왔는데 새군수 김준계(金遵繼)가 내려왔다고 하므로 그에게도 도피자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했다. 보성 전선 2척이 들어왔다. 소비포(* 이영남)가 보러 왔다.

초 8일(정사) 맑으나 동풍이 크게 불고 날씨가 몹시 찌다. 봉과 분이 배로 떠난 것을 생각하여 밤새도록 잠이 편하지 못했다. 아침에 순천이 와서 말하기를 고성(固城) 소소포(召所浦 * 마암면 두후리)에 직선 50여척이 드나든다고 하기로 즉시 제만춘을 불러 지형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가 서류를 처결하여 보냈다. 경상 우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저희 상관 방지기의 면천(免賤)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다. 진주(晉州)에 피난해 있는 전좌랑(前左郎) 이유함(李惟)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녁때 돌아갔다. 바다위에 달이 밝아 잠이 오지 아니했다. 순천과 우조방장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밤 10시께야 헤어졌다. 변존서(卞存緒)가 당포에 가서 꿩 7마리를 사냥해 가지고 왔다.

초 9일(무오) 맑음. 새벽에 우후가 배 두세척을 거느리고 소비포 뒤쪽으로 띠포를 베러 갔다. 고성(固城)이 왔는데 돼지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당황포에 적선 드나드는 것을 묻고 또 민생들이 주려서 서로 잡아 먹는다고 하니 장차 어떻게 살것인가를 물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가 활 10여 수를 쏘았다. 이유함(李惟)이 와서 작별을 고하므로 그 자(字)를 물으니 여실(汝實)이라 했다. 순천과 우조방장 우수사, 우후, 사도, 여도, 녹도(* 송여종(宋汝宗)) 강진(* 유해) 사처(泗川 * 기직남(寄直男)) 하동(河東 * 성천유(成天裕)) 보성(* 김득광) 소비포(* 이영남)들이 왔다. 저물녘에 돌아왔다. 무군사(撫軍事)의 공문을 가져 왔는데 시위(侍衛)할 군인들이 쓰기 위해서 장창(長槍) 수십자루를 만들어 보내자는 것이었다. 이날 동궁이 문책한데 대해서 답을 보냈다.

초 10일(기미) 이슬비와 큰 바람이 종일 그치지 않았다. 오후에 조방장과 순천이 와서 저녁내 이야기하며 왜적 토벌할 일을 의논했다.

11일(경신) 맑음. 아침에 미조항 첨사(* 김승룡(金勝龍))가 보러 왔기에 술 석잔을 권해 보냈다. 종사관(從事官) 공문 3건을 처결하여 보냈다. 식후 사정에 올라간 즉 경상주사(* 원균)가 보러 왔다. 술이 여남은 잔 들어가자 미친 말이 많으니 우스운 일이었다. 우조방도 역시 와서 함께 취했다. 저물어서 활 3수를 쏘았다.

12일(신유) 맑음. 이른 아침 본영의 탐선(探船)이 들어오는 편에 조카 분의 편지가 왔는데 선전관(宣傳官) 송경령(宋慶伶)이 수군을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기별하였다. 오전 10시께 적도(赤島 * 거제군 둔덕면)로 진을 옮겼고 오후 2시께 선전관이 도착하였다. 유서(諭書) 2통과 밀지(密旨) 1통을 합하여 3통인데 1통에는 명나라 군사 10만명과 은 3백냥이 나온다는 것이요. 1통은 흥적들의 뜻이 호남으로 가는데 있으니 힘을 다하여 파수보며 형세보아 무찌르라는 것이요 그속에 있는 밀지(密旨)에는 해가 지나도록 해상에서 나라를 위하여 근로하는 것을 내가 항시 잊지 못하니 공로있는 장사들도 아직껏 상을 받지 못한 자들을 적

어 울리라는 것들이었다. 서울안의 여러가지 소문도 듣고 역적 일도 들었다.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의 편지도 가져 왔다. 위에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일을 들으니 그 강개하고 그리움이 끝이 없었다.

13일(임술) 맑고 따듯했다. 아침에 영의정에게 회답 편지를 쓰고 식후에는 선전관(* 송경령)과 다시 이야기하고 서로 작별한 뒤에 종일토록 배에 있었다. 오후 4시께 소비포 사랑(* 이여념) 영등포 만호(* 우치적(禹致績))가 왔다. 오후 6시께 출발하여 한산도로 돌아오는 때에 경상(* 원균) 군관 제(諸)가 삼봉(三峰 *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으로부터 와서 말하되 적선 8척이 춘원포(春元浦 * 통영군 광도면 예승포)에 들어와 대었으나 들이칠 만하다 했다. 그래서 곧 나대용(羅大用)을 원수사에게 보내어 상의케 하면서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는 것은 큰 이익을 이루지 못함이라 아직은 가만 있다가 적선이 더 많이 나오는 때를 타서 무찌르자고 말을 전하였다. 미조항 순천 조방장이 왔다가 밤 늦게 돌아갔다. 박영남(朴永男)과 송덕일(宋德駟)도 돌아갔다.

【주】 제 이름이 빠졌는데 제홍록(諸弘祿) 이름

14일(계해) 맑고 따듯하고 바람조차 부드러웠다. 경상도 남해, 하동, 사천, 고성등지에는 송희립, 변존서, 유허(柳滉) 노운발들을 우도에는 변유헌(卞有憲) 나대용들을 점고하러 내어 보냈다. 저물녘에 방담 첨사와 배첨지가 왔다. 본영 군량 20석을 실어 왔다. 정종(鄭宗) 배춘복(裴春福)도 왔다. 장언춘(張彦春)의 면천(免賤) 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흥양이 들어 왔다.

15일(갑자) 맑음. 새벽에 거북선 2척과 보성 배 1척을 멩에 쓸 재목 치는 곳으로 보내어 초저녁에 실어 왔다. 식후에 사정에 올라가 좌조방장이 늦게 온 죄를 신문했다. 흥양배를 검열한 즉, 허술한 일이 많았다. 순천 우조방장과 우수사 우후 발포 만호(* 황정록(黃廷祿)) 여도만호, 강진현감(* 유해)들이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날이 저물어 순찰사(* 이정암)가 공문을 조도 어사(調度御使) 박홍로(朴弘老)가 순천, 광양, 두치(豆峙 * 광양군 다압면 섬진리) 등지에 복병 파수하는 일로 장계하였던 바 수군과 수령(守命)을 이동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대답이 내려왔다는 내용이였다.

16일(을축) 맑음. 아침에 흥양과 순천이 왔다. 흥양이 암행어사의 비밀 장계 초안을 얻어 가지고 와서 보이는 바 암실(* 이몽상(李夢祥)) 무장(* 이충길(李忠吉)) 영암(* 김성현(金聲憲)) 낙안(* 신호(申浩))은 파면하고 순천은 탐관오리로 논란하고 담양(* 이경로(李景老)) 진원(珍原 * 조공근(趙公瑾)) 나주(* 이운손(李用淳)) 창평(* 백유황(白惟恒)) 수령들은 악행을 덮어 주고 칭양하여 장계하였다.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니 나랏일이 이러하고야 평정될 리가 만무하다.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 또 해군 일족에 대총 징발하는 일과 장정 넷중에 둘은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일을 심히 그르다고 말했으니 암행어사 유몽인은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지 않고 다만 눈앞을 꾸며 갈것만 노력하고 남쪽 지방의 종작 없는 소리만 믿으니 나라를 그르치는 교활하고 간사한 말이 악목(岳穆)에 대한 진희(秦檜)와 다를것이 없다. 나라를 위하여 아픔이 심하다. 늦게 사정에 올라 순천, 흥양, 우조방장, 우수사 우후, 사도, 발포, 여도, 녹도, 강진 광양들과 더불어 활 12순을 쏘았다. 순천 감목관(監牧官)이 진중에 왔다가 돌아갔다. 우수사가 당포(唐浦)에 도착했다고 한다.

17일(병인) 맑음. 따듯하기가 여름같았다. 아침 나절, 지휘선을 연기에 그스르기 위해 활터 장자 위로 올가가 거기서 각처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오전 10시께 우수사가 들어왔다. 행수(行首) 군관 정홍수(鄭弘壽)와 도훈도(都訓道)는 군령으로 곤장 90도를 때렸다. 이홍명(李弘明)과 임희진(壬希璣)의 손자가 왔다. 대로써 총통(銃筒)을 만들어 왔기에 시험해 놓아 본즉 소리가 나는 듯하나 별로 소용이 없었다. 우스웠다. 우수사가 들어 왔는데 거느리고 온 전선이 다만 20척이니 한심스러웠다. 순천과 우조방장이 와서 활 5순을 쏘았다.

18일(정묘) 맑음. 아침에 배 첨지가 왔고 가리포(加理浦) 이응포(李應彪)가 왔다. 식후 사정에 올라가 해남 현감(海南顯監) 위대기(魏大器)를 전령 거역한 죄로 다스렸다. 우로 여러 장수들이 와서 현신한 뒤에 활두어 순을 쏘았다. 오후에 우수사가 왔다. 때마침 원수사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다. 밤들면서 부슬비가 내려 줄곧 계속하였다.

19일(무진) 종일 부슬비가 내리고 일기가 찌는 듯 했다. 사정에 올라 한참 혼자 있노라니 우조방장(* 어영담)과 순천이 오고 이홍명(李弘明)도 왔다. 조금 뒤에 손충갑(孫忠甲)이 왔다고 하기에 불러 들여 왜적 토벌하던 일을 물어보고 강개함을 이기지 못했다.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물녘에 숙소로 내려갔다. 변존서(卞存緒)가 본영으로 갔다.

20일(기사) 실비가 그치지 아니했다. 오전 10시께 날이 번쩍 들었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나가지 아니했다. 우조방장과 배첨지가 와서 이야기했다. 울(蔚)이 우수사 영공의 배로 가더니 잔뜩 취해서 돌아왔다.

21일(경오) 맑고도 따듯했다. 몸이 불편해서 종일 신음하였다. 순천과 우조방장 어영공(*영담)이 와서 견내량(見乃梁) 복병한 곳을 가서 살펴보았다고 했다. 청주 의병장 이(李)가 순변사(巡邊使)에게서 와서 육지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우영공은 청주 영공의 □□이다. 해가 저물어 돌아갔다. 오후 6시께 벽방(碧方) 망보는 장수(*제한국(諸漢國))가 와서 고화도 구화역(仇化驛 * 丘墟驛(통영군 광도면 면노산) 앞 바다에 왜선 8척이 와 머물러 있다고 하므로 배를 풀어 삼도에 진격 명령을 내리고 제홍록(諸弘祿) (원군의 군관)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

【주】 이-이름이 빠졌으나 이봉(李逢)을 이름이다.

【주】 초고 원문에 자만 있으니 매부인지 고모부인지 불분명한 것임.

22일(신미) 날이 거의 쌀때쯤 해서 제홍록이 와 보고하되, 왜선 10척은 구화역에 도착하고 6척은 춘원포(春院浦)에 왔다고 하며 날이 벌써 새어서 미처 추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다시 정찰하라고 명령하여 보냈다.

□ 23일부터 27일까지 빠졌음.

28일(정축) 맑음. 아침에 사정에 올라 종사관(*정경달(丁景達)과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장흥 부사(長興府使 * 황세득(黃世得))가 들어왔다. 우수사를 처벌하였다.

29일(무인) 맑음. 종사관과 아침을 함께 하고 또 작별 술을 마시며 종일 이야기하였다. 장흥도 함께 했다. 벽방 망보는 장수 제 한국의 보고에 왜선 16척이 소소포(召所浦 * 고성군 마암면 두후리)로 들어왔다고 하므로 각도에 전령하여 알리도록 했다.

[17] 3월

초 1일(기묘) 맑음. 망궤래(望關禮)를 드리고 사정에 올라가 금모포 만호(黔毛浦萬戶)를 때리고 도훈도(都訓道)를 처형했다. 종사관(*정경달)이 돌아갔다. 어둑에 막 배를 띄우려고 할 즈음, 제한국(*벽방망정(碧方望將))이 달려와 보고하되 왜선이 이미 모두 도망가고 없다고 고하므로 중지하였다. 초저녁에 장흥2호선(長興二戶船)에서 불이 나 다 타버렸다.

초 2일(경진) 맑음. 아침에 방담, 순천, 우주방장이 왔다. 늦게 사정에 올라 좌우 조방장 순천, 방담과 더불어 활을 쏘았다. 이날 저녁 장흥이 와서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강진(康津) 장작 쌓아 놓은 곳에 불이 나서 다 타 버렸다.

초 3일(신사) 맑음. 아침에 전문(箋文)을 올려 보내고 그대로 사정에 앉아 있었다.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이 와서 말하되 수군을 많이 잡아 오지 못했다고 수사(*원군)에게서 매를 맞고 또 발바닥까지 치려 하더라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었다. 늦게 순천 우조방장, 좌조방장, 방담, 가리포, 좌우수사 우후들과 활을 쏘았다. 오후 6시께 벽방 망장(*제한국)이 보고하되 왜선 6척이 오리량(五里梁 * 古里梁)과 당항포(唐項浦 *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근처에 정박해 있다 하므로 즉시 배들을 집합하라 전령하여 큰 부대는 흉도(胸島 * 제거음) 앞 바다에 진을 치게 하고 정예선 30척은 우조방장 어영담이 거느리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초저녁에 배를 띄게 지도(紙島 * 통영군 용남면)에 이르러 밤을 지나고 새벽 2시께 출발했다.

초 4일(임오) 맑음. 밤 2시께 배를 띄워 진해(鎭海 * 창원군 진동면) 앞 바다에 이르러 왜선 6척을 뒤쫓아 잡아 불태워 없애고 저도(諸島 * 창원군 구산면)에서 2척을 불태워 버렸다. 소소강(召所江 * 고성군 마암면 두후리)에 14척이 들어왔다하므로 조방장과 원수사와 함께 나가 토벌하도록 전령하고 고성 땅 아자음포(阿自音浦 * 동해면)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초 5일(계미) 맑음. 새벽에 검사복(兼司僕 * 윤봉(尹鵬))을 당항포로 보내어 적선을 깨트렸는지를 탐문하였더니 우조방장 어영담이 보고하되 적들이 우리 군사들의 위험을 겁내어 밤을 타서 도망했으므로 빈배 17척을 남김없이 불태워 버렸다 하며 경상 수사(*원군)의 보고도 같은 내용이었다. 우수사(*이억기)가 보러 왔을때 비가 크게 퍼붓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 바로 자기 배로 돌아갔다. 이날 아침 순변사에게서도 토벌을 독려하는 공문이 왔다. 우조방장, 순천, 방담, 배첨사(*경남(慶男))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원수사가 배에 이

르자 여러 장수들은 각각 돌아갔다. 이날 저녁 광양의 새 배가 들어왔다.

초 6일(갑신) 맑음. 새벽에 탐망군이 본즉 적선 40여척이 청슬(靑漆 * 거제군 사동면 지석리)로 건너 오더라는 것이었다. 당항포의 왜선 21척은 모조리 불태워버렸다는 긴급 보고가 왔다. 늦게 거제(巨濟)로 향했다. 역풍으로 간신히 흉도(胸島)에 이르자 남해 현각(* 기효근)이 보낸 급보에 [명나라 군사 두 사람과 왜남 여덟이 패문(牌文)을 가지고 들어왔기에 그 패문과 명나라 병정을 몰려 보냅니다]고 하였다. 그것을 받아 펴보니 명나라 도사부(都司府) 담종인(譚宗仁)의 [적을 치지 말라는 패문]이었다. 나는 몸이 몹시 괴로와 앓고 늙기조차 불편했다. 저녁에 우수사와 함께 명나라 병정을 면접했다.

초 7일(을유)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하여 꿈적거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랫사람더러 패문에 대한 회답을 만들라 하였더니 글 꼴이 아니었다. 원수사가 손의갑(孫義甲)을 시켜 만들게 했건마는 그것 역시 마음에 맞지 아니했다. 내가 병중에 억지로 일어나 앉아 글을 짓고 정사립(鄭思立 * 공의 군관)을 시켜 써 보내게 했다. 오후 2시께 출발하여 밤 10시께 한산진중에 이르렀다.

초 8일(병술) 맑음. 병세를 별로 가감이 없었다. 기운이 더욱 축이 나서 종일 고통했다.

초 9일(정해) 맑음. 기운이 조금 나은 듯하므로 따뜻한 방으로 옮겨 누웠다. 다른 증세는 없었다.

초 10일(무자) 맑음. 병세가 차츰 덜 해지건만 열기가 치받쳐 그저 찬것만 마시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저녁때 비가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11일(가축) 종일 큰 비가 내리다가 어둑어둑에 개기 시작했다. 병세가 훨씬 덜해졌다. 열도 또한 내렸다. 다행 다행한 일이다.

12일(경인) 맑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영의정(* 유성룡)에게 편지를 쓰고 장계도 정서(正書)하여 바쳤다.

13일(신묘) 맑음. 아침에 장계를 봉해 올렸다. 병은 차츰 낫는 것 같으나 기력은 몹시 고달랐다. 회(* 아들)와 송두남(宋斗男)을 내어 보냈다. 오후에 원수사가 와서 자기의 잘못된 일을 고백하므로 장계를 도로 가져다가 원사진(元士震)과 이응원(李應元)들이 가왜(假倭)를 목잘라 바친 일을 고쳐 보냈다.

14일(임진) 비. 비. 병은 나은 듯했으나 머리는 무겁고 불쾌했다. 저녁때 광양 원(光陽 * 송전(宋璵)과 강진원(康津 * 유해) 배첨사가 함께 갔다. 들으니 충청 수사(* 구사직(具思稷))가 이미 신장(薪場)에 왔다고 했다. 종일 몸이 괴로웠다.

15일(계사) 비는 그쳤으나 바람이 크게 일었다. 미조항 첨사가 돌아갔다. 종일 신음했다.

16일(갑오) 맑음. 몸이 몹시 불편했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충청수사가 전선 9척을 거느리고 진에 이르렀다.

17일(을미) 맑음. 몸이 회복되지 아니했다. 변유헌(卞有憲)이 본영으로 돌아가고 순천(* 권준) 역시 돌아가고 해남(海南 * 위대기(魏大器))이 새 현감과 고대하는 일로 나갔다. 황득중(黃得中)들은 복병에 관한 일로 거제도도 들어갔다. 탐선(探船)이 들어왔다.

18일(병신) 맑음. 몸이 몹시 불편했다. 남해의 기효근(奇孝謹) 소비포(* 이영남) 적량(赤梁 * 고여우(高汝友)) 보성(* 김득광)이 보러 왔다. 기(奇)는 파종일때문에 고을로 돌아갔다. 보성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하지 않은채 돌아갔다. 낙안(樂安)의 유위장(留衛將)과 향소(鄕所)들을 잡아다 가두었다.

19일(정유) 맑음. 몸이 불편했다. 종일 신음했다.

20일(무술) 맑음. 몸이 불편했다.

21일(기해) 맑음. 몸이 불편했다. 녹명관(錄名官)은 여도 만호(呂島萬戶) 남도 만호(南桃萬戶 * 강응표(姜應彪) 소비포 관관(所非浦權管)을 정하였다.

22일(경자) 맑음. 몸이 조금 나은 것 같았다. 원수(元帥)의 공문이 돌아왔는데 담지휘(譚指輝 * 종인(宗仁))의 자문(咨文)과 왜장의 서계(書契)를 조파총(曹把摠)이 가지고 갔다고 했다.

23일(신축) 맑음. 몸이 여전히 불편했다. 방담(* 이순신) 흥양(* 배흥립) 조방장(* 어영담)이 보러 왔다. 견내량이 미역 53동(* 미역 1동은 10가락)을 따 가지고 왔다. 발포(* 황정

록)도 역시 보러 왔었다.

24일(임인) 맑음. 몸은 조금 나은 듯했다. 미역 60동을 따왔다. 정사립(鄭思立 *공의 군관)이 왜의 목을 베어 가지고 왔다.

25일(계묘) 맑음. 흥양과 보성이 나갔다. 사로잡혀 갔던 아이로 왜의 진중에서 명나라 장수(*담종인)의 패문(牌文)을 가지고 왔던 자를 흥양으로 보냈다. 늦게 사성으로 올라갔으나 몸이 편치 않아 일찌기 숙소로 내려왔다. 저녁에 여필(汝弼)과 회()가 변존서(卞存緒) 신경황(申景潢)과 함께 왔다. 어머니의 안부를 자세히 들었다. 다만 선산이 모두 산불에 연소되었으나 아무도 끄지를 못했다 하니 지극히 애통한 일이었다.

【주】 여기서로 잡혀왔던 아이는 상주 사람 사삿집중 희순(希順)을 말한 것이다.

26일(갑진) 맑은데 따뜻하기가 여름날 같았다. 조방장과 방답이 보러 왔다. 발포(鉢浦)는 휴가를 얻어 가지고 돌아갔다. 늦게 마량첨사(馬梁僉使 *강응호(姜應虎)) 사랑 만호(*이여념(李汝恬)) 사도 첨사(蛇渡僉使 *김완(金浣)) 소비포(所非浦)가 함께 보러 왔다. 경상 우후(*이의득(李義得))와 영등만호(永登萬戶 *우치적(禹致績))도 왔다가 창신도(昌信島 *창선도(昌善島))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27일(을사)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우수사가 보러 왔는데 몸이 좀 나은 것 같았다. 저녁 8시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때 조카 봉()이 몸이 편찮다고 했다.

28일(병오) 비. 종일 비가 왔다. 조카 봉의 병세가 매우 중하니 민망하다.

29일(정미) 맑음. 탐선이 들어 왔는데 어머니가 평안하시다고 했다. 웅천(熊川 *이운룡(李雲龍)) 하동(河東 *성천유(成天裕)) 소비포들이 보러 왔고 장흥, 방답고 보러왔다. 저녁때 여필과 봉이 함께 돌아갔는데 봉이 몹시 아파서 돌아간 것이다. 온 밤을 걱정 걱정으로 지새웠다. 어둑어둑에 방충서(方忠恕)와 조서방(趙西方)의 사위 김항도 왔다.

30일(무신) 맑음. 식후 사정에 올라가 충청도 군관과 도훈도(都訓道) 및 낙안(樂安)의 유위장(留衛將)과 도병장들을 처벌하였다. 늦게 삼가원(三嘉) 고상안(高尚顏)이 보러 왔다.

[18] 4월

초 1일(기유) 맑음. 일식(日蝕)을 할 것인데 하지 아니했다. 장흥 진도(*김만수(金萬)) 녹도(*송여종(宋汝宗))가 여제(滌祭)를 지내기 위해 돌아갈 것을 고했다. 충청수사가 보러 왔다.

초 2일(경술)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사정에 올라 삼가 현감(三嘉縣監 *고상안(高尚顏) 및 충청수사(*구사직(具思稷))와 종일토록 이야기했다. 조카 해()가 들어왔다.

초 3일(신해) 맑음. 이날 여제를 지냈다. 삼도(三道) 군사들에게 술 1천 80동이를 먹였다. 우수사(*이억기) 충청수사가 함께 앉아 먹였다. 저물녘에야 내려왔다.

초 4일(임자) 흐리다가 어둑어둑에는 비까지 내렸다. 원수(元帥)의 군관 송홍득(宋弘得)과 변홍달(卞弘達)이 새로 급제한 홍패(紅牌)를 가지고 왔다. 경상 우병사(慶尙 右兵使 *박진(朴晉))의 군관이며 공주(公州) 박창령(朴昌齡)의 아들인 의영(義英)이 와서 그 장수의 안부를 전하였다. 식후에 삼가 현감이 왔다. 늦게 사정에 올라 갔다. 장흥(長興)이 술을 가지고 와서 종일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초 5일(계축) 흐림. 새벽에 최천보(崔天寶)가 세상을 떠났다.

초 6일(갑인) 맑음. 별시(別試) 보는 과거장을 개설했다. 시관(試官)은 나와 우수사(*이억기)와 충청 수사(*구사직)요, 참시관(參試官)은 장흥, 고성, 삼가, 웅천으로 시험보는 것을 감독했다.

초 7일(을묘) 맑음. 일찍 모여 시험을 받았다.

초 8일(병진) 맑음. 몸이 불편한채 시험장으로 올라갔다.

초 9일(정사) 맑음. 시험을 마치고 방을 내어 붙였다. 비가 쏟아졌다. 어조방장(魚助防將 *어영담)이 세상을 떠났다. 애통함을 어찌 다 말하랴.

초 10일(무오) 흐림. 순무어사(巡撫御使)가 진에 온다고 통지가 왔다.

11일(기미) 맑음. 순무어사가 들어온다 하므로 마중 배를 내어 보냈다.

12일(경신) 맑음. 순무어사 서성이 내 배에 와서 이야기했다. 우수사와 경상 수사(*원균) 총청 수사도 함께와서 술을 세순 배 원수사는 짐짓 취한 체 광증을 부리며 함부로 무리한 말을 뇌까리니 순무도 괴이함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짓이 극히 흉악하였다. 삼가(三嘉)가 돌아갔다.

13일(신유) 맑음. 순무가 전쟁 연습하는 것을 보고 싶어했으므로 죽도(竹島 *통영군 한산면) 바다 가운데로 나가 연습해 보였다. 선전관(宣傳官) 원사표(元士彪)와 금오랑(金吾郎) 김제남(金悌男)이 총청수사를 잡아 갈일로 왔다.

14일(임술) 맑음. 아침에 김제남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늦게 순무의 배로 가서 군사 기밀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의논했다. 얼마 뒤에 우수사가 왔다. 이정충(李廷忠)도 불러 오고 순천, 방답, 사도도 모두 왔다. 몹시 취해서 고별하고 내배로 돌아왔다. 저녁에는 총청수사의 배로 가서 작별 술을 마셨다.

15일(계해) 맑음. 금오랑과 아침을 함께 했다. 늦게 총청 수사가 선전관,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왔다. 구우경(具虞卿)과 작별했다. 저물녘에 이경사(李]景思)가 그 형 헌(憲)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16일(갑자)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사정에 올라가 밀려 있던 공무를 처결해 보냈다. 경상 수사(*원균)의 군관 고경운(高景雲)과 도훈도(都訓導) 및 사변에 대비하는 책임을 지는 아전을 잡아 와서 지휘에 응하지 않고 적의 변고도 보고하지 않은 죄로 매를 때렸다. 저녁때 송두남(宋斗男)이 서울로부터 내려 왔다. 장계에 따라 날날이 하교한 대로 시행한다.

17일(을축) 맑음. 늦게 사정에 올라가 공문을 처결해 보냈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거제 현령(巨濟縣令 *안위(安衛))의 보고에 왜선 백여척이 저의 본토로부터 처음 나와서 절영도(折影島 *絶影島)로 향해 간다는 것이었다. 저물녘에 거제 사람들로 사로 잡혀 갔던 남녀 16명이 도망해 돌아왔다.

18일(병인) 맑음. 새벽에 도망해 돌아온 사람들에게 왜적의 정형을 자세히 물으니 평의지(平義智 *宗義智(대마도주))는 웅천(熊川) 땅입암(笠岩 *웅천면 재덕리)에 있고 평행장(平行長 *소서행장(小西行長))는 웅포(熊浦)에 있다고 했다. 충청도 새수사(*이순신(李純信))와 순천과 우수사 우후(*이정충)가 오고 늦게 거제 현령(*안위)이 왔다. 저녁때 비가 시작해서 밤새도록 내렸다.

19일(정묘) 비. 비. 침지(僉知) 김경로가 원수부(元帥府)로부터 와서 적을 치는데 서로 책응해야 할 일로 의논하고 그대로 한 배에서 잤다.

20일(무진) 종일 가는 비가 걸히지 않았다. 우수사 및 총청 수사 장흥, 마량(馬梁 *강응호(姜應虎))이 와서 바둑도 두고 군사 의논도 했다.

21일(기사) 비가 오다 개다 했다. 홀로 배똥집 아래 앉아 있었다. 저녁내 아무도 오지 아니 했다. 방답이 총청수사의 중기(重記)를 수정할 일로 돌아갈 것을 고해 왔다. 저녁에 김성숙(金惺叔)과 곤양(昆陽) 이광악(李光岳)이 보러 왔다. 저물녘에 흥양(*배흥립)이 들어왔다. 본영 탐후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안녕하시다 했다. 다행하고 다행한 일이다.

22일(경오) 맑음. 바람이 시원하기 가을 날씨 같았다. 김침지(*경로(敬老))가 돌아갔다. 장계와 조총(鳥銃)을 올려 보내고 또 동궁에게 긴 창을 봉해 올렸다. 장흥이 오고 저녁에는 흥양도 왔다.

23일(신미) 맑음. 아침에 순천(*권준) 흥양이 왔다. 늦게 곤양이 광악이 술을 가져왔으며 장흥(*황세득)이 오고 임치(臨淄 *홍견(洪堅))도 함께 왔다. 곤양이 몹시 취해서 미친 소리를 떠들어 댔다. 우스웠다. 나도 잠깐 취했었다.

24일(임신) 맑음. 아침에 서울 편지를 썼다. 늦게 영암 군수(*박홍장(朴弘章))와 마량(馬梁) 침사(馬梁僉使 *강응호(姜應虎))가 보러 왔다. 순천이 돌아갔다. 여러가지 장계를 올려 보냈다. 경상 우수사에게 순찰사 종사관이 들어왔다고 했다.

25일(계유) 맑음. 새벽부터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고통했다. 아침에 보성이 보러 왔다. 밤새도록 앓았다.

26일(갑술) 맑음. 병세가 극히 중해져서 거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곤양이 돌아갔다.

27일(을해) 맑음. 아픈 것이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았다. 숙소로 갔다.

28일(병자) 맑음. 병세가 아주 좋아졌다. 경상 수사(*원균)와 좌랑(佐郎) 이유함(李惟)이

보러 왔다. 울(蔚)이 들어왔다.

29일(정축) 맑음. 기운이 유쾌한 것 같았다. 이날 우도(右道)에서 삼도 군사들에게 술을 먹였다.